

내포지역의 조창 분포

이 인 화*

Distribut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Warehouse in Nae-po District

Lee, Inn-wha*

I. 서론

조창은 조세로 받은 곡식의 운반을 위하여 배가 다니던 바다나 강가에 두었던 창고시설을 말한다. 이런 조창은 해운창과 수운창으로 나누는데, 고려시대에는 12창과 서海道(西海道 : 황해도) 장연(長淵) 등에 조창이 있었다. 이들 포구들은 조창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연안 항로의 정박지 또는 기착지로서 해상교통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옛 군현에서 공세곡(貢稅穀)을 징수하여 읍의 근처에 있는 읍창에 일단 수납되고 이를 국도(國都)인 서울로 수송하기 위해 해안에 관창(官倉)인 해창(海倉)에 운반하였다. 이를 조운선인 지도선을 이용해 서울 마포항으로 운반하였는데, 이런 조창에는 다시 출장소와 같은 작은 지창(支倉)들이 있었다.

옛 조창지에는 오늘날 창고터, 즉 콧집터와 고가(古家), 고목(古木), 배터 등이 남아 있고, 창지명(倉地名)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¹⁹⁾ 그렇지만 현재 내포지역에서 조창지에 배치되어 있던 건축물들은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지명, 또는 기록으로 파악된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명에 배 터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부분 농경지화 되어 그 현장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훼손되어 그 시대 상황을 복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본 고(考)에서는 내포지역이 위치한 조창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의미, 그리고 이 많은 조창지가 분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해 그 특징적인 모습을 정리하며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조창의 일반적인 특징

각 조창에는 판관(判官)이라는 감독관리, 색전(色典)이라는 향리, 조선을 몰고 가는 선장인 초공(梢工), 선원인 수부(水夫)가 있었다. 판관은 외관(外官)의 대우를 받았고, 색전은 초공, 수부와 더불어 세곡을 수송해 경창에 입고시키는 일, 패물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책임을 지는 조운수행의 실제 책임자였다. 따라서 조창에는 판관, 향리 이외에 초공, 수부, 잡역을 맡은 잡인(雜人) 등 조선에 승선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²⁰⁾ 따라서 조창이 있었던 곳에는 민가, 부두, 주막, 수부(水夫)의 가옥, 선장(船匠), 객주 집 등이 있어 교통상 거점으로 촌락이 형성·발전되었다.

이런 조창이 창고시설을 갖춘 것은 16세기경

* 민속지리학박사

19) 김추윤, 1995, 전계서, pp.138 ~ 139.

20) 상계서, p.141.

표 1. 조선 전기의 조창과 수세지역

구분	조창명	각 조창의 수세지역	부속조선수
직납 (直納)	경창(京倉 : 서울)	경기 제읍과 강원도의 준양(淮陽), 금성(金城), 금화(金化), 평강(平康), 이천(伊川), 안협(安峽), 철원(鐵原)	
참오 站運	좌수참	가흥창(可興倉 : 충주)	51집
		흥원창(興原倉 : 원주)	
		소양강창(昭陽江倉 : 춘천)	
	우수참	금곡포창(金谷浦倉 : 백천)	20집
조읍포창(助邑浦倉 : 강음)			
해운 (海運)	공세곶창(貢稅串倉 : 아산)	충청도의 아산, 서산, 한산, 연산, 임산, 정산, 공주, 홍주, 신창, 결성, 보령, 전의, 청양, 이산(尼山), 대흥, 석성, 해미, 태안, 천안, 비인, 온진, 목천, 면천, 연기, 덕산, 서천, 직산, 오산, 부여, 감포, 예산, 당진, 평택, 온양, 청주, 문의(文義), 회덕, 진잠(鎭岑), 옥천(沃川), 회인(懷仁)	60집
	덕성창(德城倉 : 용안)	전라도의 용안(龍安), 전주, 임실, 남원, 임피(臨陂), 금堤, 장수, 금구(金溝), 雲峰, 익산, 만경, 여산, 금산, 진산, 태인, 옥구, 진안, 고산, 무주, 함열	63집
	법성창(法聖倉 : 靈光)	전라도의 영광, 홍덕, 玉果, 부안, 함평, 珍原, 담양, 茂長, 정읍, 곡성, 창원, 古阜, 순창, 高敞	39집
	영산창(榮山倉 : 나주)	전라도의 나주, 순천, 강진, 광산(光山), 진도, 낙안, 광양, 화순, 남평(南平), 동복(同福), 홍양, 무안, 능성, 靈巖, 보성, 장흥, 해남	53집

이고 그 전에는 노적형태였다. 실례로 가흥창도 창고가 건축된 것은 중종(中宗) 16년으로 충청감사 이세응(李世應)과 경상감사 김안국(金安國) 등이 부근의 폐사(弊社)를 뜯어다 약 70간의 창고를 건립하면서 노적을 면했다 한다. 아산의 공진창(貢津倉)도 중종 때 창고의 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창고의 설비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연해안에는 해운판관, 한강연안에는 수참판관(水站判官)을 두어 각 조창의 세곡 수납과 반출을 감독하게 하였다.

당시 잦은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서 16세기경부터 조운이 사선업자(私船業者)들에 의해 운송이 주도되었다. 지토선(地土船)은 지방에 소재

한 지방민이 소유한 선박으로 이들 사선을 임차하여 세곡을 수송했는데, 지토선은 고깃배, 소금배, 장삿배가 중심으로 세곡과 소작료운 운송하였다.

각 조창에는 판관(判官)이라는 감독관리, 색전(色典)이라는 향리, 조선을 몰고 가는 선장인 초공(梢工), 선원인 수부(水夫)가 있었다. 판관은 외관(外官)의 대우를 받았고, 색전은 초공, 수부와 더불어 세곡을 수송해 경창에 입고시키는 일, 폐물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책임을 지는 조운수행의 실제 책임자였다. 따라서 조창에는 판관, 향리 이외에 초공, 수부, 잡역을 맡은 잡인(雜人) 등 조선에 승선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²¹⁾ 따라서 조창이 있었던 곳에는 민가, 부두, 주막, 수부(水夫)의 가옥, 선장(船匠), 객주 집 등이 있어 교통상 거점으로 촌락이 형성·발전되었다.

이런 조창이 창고시설을 갖춘 것은 16세기경이고 그 전에는 노적형태였다. 실례로 가흥창도 창고가 건축된 것은 중종(中宗) 16년으로 충청감사 이세웅(李世應)과 경상감사 김안국(金安國) 등이 부근의 폐사(弊社)를 뜯어다 약 70간의 창고를 건립하면서 노적을 면했다 한다. 아산의 공진창(貢津倉)도 중종 때 창고의 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창고의 설비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연해안에는 해운판관, 한강연안에는 수참판관(水站判官)을 두어 각 조창의 세곡 수납과 반출을 감독하게 하였다.

당시 잦은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서 16세기경부터 조운이 사선업자(私船業者)들에 의해 운송이 주도되었다. 지토선(地土船)은 지방에 소재한 지방민이 소유한 선박으로 이들 사선을 임차하여 세곡을 수송했는데, 지토선은 고깃배, 소금배, 장삿배가 중심으로 세곡과 소작료운 운송하였다.

내포지역은 조창제도가 제도화된 고려시대에 이미 고려 13창의 하나인 하양창(河陽倉 : 평택군 팽성읍 본정리)이 설치되어 있었고, 고려시대 말에 삼교천 지류인 무한천 장포(현 아산시 선장면 장포리)에 당성(滄城)을 쌓고 당성창(滄城倉)을 설치하여 조운하였다. 그 후 <표 1>과 같이 토사의 퇴적으로 그 하류인 면천의 범근내포(犯斤內浦 : 현 당진군 우강면 강문리 부리포 일대에 있던 삼교천의 포구)로 옮겨졌다. 범근내

포는 세종(世宗 : 1419 ~ 1450) 때에는 범근내포가 중심조창이었고 이밖에 공세곶, 해음안포(兮音安浦), 추호포(推乎浦), 경양포 등지에서 세곡을 수납 운송하였는데, 범근내포에서 홍주목, 공주목 관할의 군현의 조세를 조운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성종(成宗) 9년(1478)에 아산군 인주면 공세곶(貢稅串)으로 조창을 이전하게 되었다.

III. 내포지역의 군현별 조창 분포

1. 홍주

홍주에는 <표 2>와 같이 북창, 서창, 남창, 운창, 사창이 있었고, 목정창, 마항창, 구창, 오산창, 공세창, 대부창 등 10개의 사창이 있었다. 남창은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포항마을과 중리마을의 남쪽외곽에 있어 청양 등 내륙에서 운반해온 세곡을 저장하던 창고였다.²²⁾ 서창은 홍주 고북면에 있던 창고로 현재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2구 서창마을이다. 또 고북면 봉생리 서창(西倉)·서창말·창리, 고북면 창동·곳집말²³⁾ 등의 지명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현재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와 경계지점으로 만(灣)의 구릉(해발 26.1m) 북서쪽 남향사면에 위치했다. 천수만 간척사업으로 농지가 되기 전에는 마을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 왔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개정이전까지 홍주목에 속하던 곳으로 《홍성군지》(1925)에 고남·고북·운천 3개 면의 환미(還米) 530석 4승 7합(合) 5작(勺)을 보관하였다고 하였고 이곳에서는 인근의 곡식을 창고에 거둬 군산, 장항, 인천항으로 버를 운반하였다.²⁴⁾

21) 상계서, p.141.

22)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홍성문화유적분포지도, 충청남도, pp.210 ~ 211.

23) 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서산시, p.340.

24) 충남발전연구원, 1998, 서산시 문화유적분포도, 충청남도, p.271.

북창은 당진군 순성면 증방리 북창마을에 있었다. 이곳을 「홍주 북창」이라 부르는데 현재는 간척되어 내륙에 속해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사창은 현재의 당진군 합덕읍 대합덕리 삼교천변 목정마을에 사창(社倉)인 목정창(木井倉)이 있었고²⁵⁾ 대부창은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 1구 내북동으로 무한천 상류에 있다.²⁶⁾ 신평 마항창(馬項倉)은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草垈里) 1리 소창말로 초대리는 원래 홍주군(洪州郡) 신북면(新北面)지역이었다. 또한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성치(城峙) 남쪽에 옛날 사창(社倉)인 구창(舊倉)과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중구리(中九里) 북쪽에 공세창(貢稅倉)이 있었다.

2. 면천군(沔川郡)²⁷⁾

면천군에는 <표 2>와 같이 읍창(邑倉), 북창(北倉), 남창(南倉)이 있었다.²⁸⁾ 남창은 면천 관문에서 동쪽으로 30리 지점인 우강면 창리 범근내포(犯斤乃浦)에 있었고, 북창은 북서쪽으로 40

리 북창(北倉)으로 현재 송산면 당산리 1구에 있던 면천군의 창(倉)이었다. 창고의 크기는 면천 읍창(내창) 52칸, 남창은 35칸, 북창은 36칸 있었다. 『충청도읍지』 면천읍지 창고조, 『면양읍지(沔陽邑誌)』 범천면조·산천조·창고조, 『신증동국여지승람』 면천군 산천조에²⁹⁾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 간척이 급격히 진전되어 삼교천 유역에서 옛 조창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다만 당진 우강면 창리에 「창말」 또는 「창촌」이라는 지명만 남아 있다.

송산 가곡창(佳谷倉)은 사창으로 원래 면천군 창택면(倉宅面) 창리(倉里)지역이고, 순성 오산창(鰲山倉)은 당진군 순성면 본리(本里) 오산(鰲山) 북쪽 삼교천의 지류인 남원천의 상류 순성천(順城川)변에 있었다. 일명 북창(北倉)마을이라 부른다. 우강 둔창(屯倉)은 우강면 내경리(內鯨里) 경원(鯨元) 즉 고래원 북서쪽 둔창이다.

3. 덕산군(德山郡)³⁰⁾

25) 한말에 간행된 《홍주읍지(洪州邑誌)》 창고조 사창(社倉)란에 「합남면(合南面) 목정리(木井里)에 사창(社倉)이 있는데 홍주 관아에서 북쪽으로 60리 떨어져 있다. 소속면은 합남면과 합북면의 2개 면이고 환미는 470석 6두 7승이다.(合南木井倉北距六十里屬合南合北二面米四百七十七石六斗七升)」라고 기록하고 있다.

26)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전게서, p.198.

27) 원래 면천군이란 지명은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처음 등장한다. 이때 관할 구역이 竹林, 德頭, 嘉禾, 泛川, 蓀洞, 草川, 中興, 甘泉, 松山, 昇仙, 淨界, 松岩, 馬山, 邑內의 14개 면을 관할하였는데, 고종 32년(1895년)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서 洪州郡의 合南, 合北, 新南, 新北, 縣內의 5개 면과 德山郡의 菲芳串面을 편입하여 20개 면이 되었다가 1914년 군면폐합에 따라 당진군에 편입되어 마암(馬岩), 면천, 송산, 순성, 범천, 합덕, 송악, 신평면 등 7개 면의 지역이 되었다.

28) 김정호의 「대동지지」 면천 창고조에 읍창 북창倉宅山西海邊 海倉東南二十七里泛川面 漕倉今海倉舊有公洪州所領漕倉成宗九年以泥生水淺移于牙山貢稅串 『대동지지』에 기록된 읍창, 북창은 창택산(倉宅山) 서쪽 해변에 있다. 또 「漕倉은 현재 海倉이라 부르며 옛날 공주와 홍주목 소속의 조창이 있던 곳인데 조선 성종 9년(1478년)에 이토가 쌓여서 수심이 알아져 배가 못 다녀 아산의 공세곶으로 옮겼다.」

29) 『충청도읍지』 중 『면천읍지』 창고조에 「內倉五十二間 南倉三十五間在郡東三十里泛川面 北倉三十六間在郡北四十里松山面」, 또 『沔陽邑誌』 범천면조에 「泛川面自官門東距三十里牙山界」, 또 山川條에 「犯斤乃浦在郡東三十里有倉納公洪州所領郡縣稅米漕至于京成化十四年春以水淺舟膠移于牙山貢稅串」. 역시 창고조(倉庫條)에 「南倉三十五間在沔川郡東三十里」, 山川條에 「泛川浦在郡東二十里有倉捧稅而古漕運取成化十四年移牙山貢津」, 倉庫條에 「內倉五十二間 南倉三十五間在郡東三十里泛川面 北倉三十六間在郡北四十里松山面」라 기록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 면천군 산천조(山川條)에 「犯斤乃浦在郡東二十七里有倉納公洪州所領郡縣稅米漕至于京成化十四年春以水淺舟膠移于牙山貢稅串」에 기록하고 있다.

30) 덕산군은 조선 태종 5년(1405)에 덕풍(德豐), 이산(伊山)의 2현을 합하여 덕산(德山)으로 하였고 태종 13년(1413)에 현감을 두고 덕산현이라 하였으며, 순조 28년에 덕산군으로 승격하여 장촌(場村), 대조지(大鳥旨), 대

덕산군(德山郡)에는 <표 2>와 같이 창(倉)이 읍창과 해창(海倉)이 있었다. 읍창은 좌기청(坐起廳)이 3칸과 창고 76칸, 해창(海倉)은 비방곶면³¹⁾ 창리(倉里 : 합덕읍 합덕리³²⁾ 창말) 덕산현에서 동북방향으로 40리 떨어진 삼교천변에 월경지로 좌기청(坐起廳)이 3칸, 창고 34칸으로 있었다.³³⁾

4. 당진현

당진현에는 <표 2>와 같이 북창, 해창, 외창, 사창이 있었다. 북창(北倉)은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牛頭里) 태성마을에 있었고 해창(唐津海倉)은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唐津浦里) 2구 해창(海倉) 마을에 있었다. 외창(外倉)은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三花里) 2구 바닷가로 현 환영철강공장 옆 염전터로 본래 당진군 외맹면(外孟面) 외창리(外倉里)지역이었다. 사창(社倉)은 고대 용두창(龍頭倉)으로 당진군 고대면 용두리 셋말 잣배기 서쪽에 있었다. 현재 상용(上龍),

상용두리(上龍頭里)를 사창말이라고 부른다.

5. 예산현(禮山縣)

예산현에는 <표 2>와 같이 읍창과 포창이 있었는데, 대흥현(大興)청양현(靑陽)의 창고도 삼교천변에 같이 있었다. 예산현의 창(倉)은 무한천의 하류인 현 예산읍 창소리 창말³⁴⁾ 호두포에 포창(浦倉)이 있었고, 이 창에서 약간 떨어진 남쪽으로 고을내 적당한 포구가 없던 청양(靑陽)과 대흥(大興)의 청양포창(靑陽浦倉), 대흥포창(大興浦倉)이 있었다.³⁵⁾ 즉, 예산현 금평면 창촌에 예산현·대흥군·청양현의 창고가 인접해서 나란히 있었다. 따라서 이 호두포가 예산현, 대흥군과 청양현의 공세(貢稅)를 받아 조운하던 포구로 현재도 창소리에 공세포가 있다. 예산(禮山) 호두포(狐頭浦)에서 각각 임선(賃船)하여 세곡을 봉납하였다. 『예산현읍지』 창고조에 읍창이 22칸, 포창이 13칸으로 15리 지점에 있었고³⁶⁾ 대흥현의 창도 읍창이 58칸, 포창이 20칸

덕산(大德山), 나박소(羅朴所), 현내(縣內), 내야(內也), 외야(外也), 도용(道用), 고현내(古縣內), 고산(高山), 거등(居等), 비방곶의 12개 면을 관할하였다. 덕산현의 행정기구는 중 6품의 현감 밑에 좌수 1명, 별감 2명, 군관 8명, 아전 40명, 지인(知人) 22명, 사령 27명, 관노 16명, 관비 12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덕산향토지편찬위원회, 1996, 덕산향토지, 금요인쇄사, p.61. p.133.)

31) 비방곶면은 현재 합덕읍 옥금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신흥리 각 리에 각각 일부씩 편입되었다. 이 5개 리 지역은 현재 구양교를 중심으로 삼교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비방곶면은 삼교천변에 덕산현 소속 월경지이다.

32) 합덕읍 합덕리는 1914년 군면통폐합에 따라 비방곶면 泛川里, 합德里, 倉里, 新里 일부를 병합하여 이루어졌다. 德山郡 비방곶면지역이 1895년(고종 32년) 지방관제 개정에 의해서 면천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서 다시 당진군 합덕면(현 : 합덕읍) 합덕리에 편입되었다.

33) 김정호의 『대동지지』 덕산 창고조에 「邑倉 海倉在非方串面」, 『덕산군지』 창고조 「여지도서」 덕산현 창고조와 「덕산현읍지」 창고조에 「內倉坐起廳三間庫舍七十六間 海倉坐起廳三間庫舍三十四間在縣東北間四十里」라 기록하고 있고 『증보문헌비고』 제33권 아산조(牙山條)에도 월경지로 덕산 해창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34) 창소리(倉所里)는 본래 예산군 금평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今坪面의 倉村, 內所, 外所리를 병합하여 창소리라 해서 任城面에 속해 있다가 1914년 임성면을 예산면으로 고치고 1940년 예산읍으로 승격되었다.

35) 김정호의 『대동지지』 예산 창고조에 「邑倉 海倉在狐頭浦大興靑陽兩邑海倉置于此」 즉 「예산 해창은 호두포에 있는데 대흥, 청양 양읍의 해창도 이곳에 있다.」 山水條에 「狐頭浦北十五里古云利涉浦無限城川下流其下爲順串浦」 즉 「호두포는 예산관아에서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섭포라고 불렀고 무한천(무한천) 하류에 있다. 그 아래로 더 내려가면 돈곶포가 나온다」라고 하였으며, 김정호의 『大東地志』 大興과 靑陽의 창고조(倉庫條)에 「邑倉 海倉在禮山新禮院北狐頭浦」 즉 「청양과 대흥의 해창은 예산 땅 신례원 북쪽 호두포에 있다」고 하였다.

이 있어³⁷⁾ 예산현이 호두포 포창(浦倉) 옆의 창고였었다.

또한 예산현에는 조운(漕運)을 위한 포구를 갖고 있지 않았던 천안이 세곡미의 수송에 유리한 이 두 곳에 월경지를 확보하고 삼교천변에 3개의 창(倉)을 설치하였는데³⁸⁾,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를 보면 삼교천과 곡교천이 만나는 지점의 동쪽에 「천안돈의(天安頓義)」라고 쓰고 창(倉) 표시가 되어 있고, 무한성천(무한천)과 선화천(삼교천 본류)이 만나는 지점에도 「천안지(天安地)」라고 쓰고 창 표시가 선화천(宣化川)변에 하나, 무한성천(無限城川)변에 하나 있다.³⁹⁾ 이 세 지역은 그 후 각각 천안군 소속의

면(面)으로 천안 신종창이 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신태리(新宅里), 하평리(下坪里) 지역⁴⁰⁾에 있었다.

6. 신창현(新昌縣)

신창현의 창은 <표 2>와 같이 읍창, 당성창, 해창이 있었다. 신창현 읍창은 현재 신창면 읍내리 북촌 읍창터에 있던 창이다. 그리고 대서면에 있던 해창은 현재의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해창말이고⁴¹⁾ 장포에도 당성창이 있어 고려 공양왕 때 당성을 쌓고 조운하였다.⁴²⁾ 즉, 정포도는 본 현 서쪽 20리 장포⁴³⁾의 하류로 예산현의 무한천이 합류하여 먼천군의 범근내포(犯斤乃

36) 『예산현읍지』 창고조에 「邑倉二十二間 浦倉十三間在縣北十五里稅大同裝發所」, 또 『輿地圖書』 예산현 倉庫條에 「邑倉二十二間 浦倉十五間在縣北十五里田大同捧上裝運所」. 『신증동국여지승람』 예산현 山川條에 「狐頭浦在縣北十九里即無限川下流」 즉, 「狐頭浦는 예산현 북쪽 19리 지점에 있는데, 무한천의 하류에 해당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37) 『대동군지』 창고조에 「邑倉五十八間 浦倉二十間在北距禮山地田大同捧上裝運(所)」

38) 김정호, 『대동지지』 천안 창고조(倉庫條)에 「邑倉 毛山倉在牙山市浦 新宗德興頓義皆有倉」 즉, 「모산창은 아산의 시포에 있고, 신종, 덕흥, 돈의에는 모두 창이 있다」라고 하였고 신종, 덕흥, 돈의가 대동여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39) 김정호, 『대동지지』 천안 坊面條에 「新宗本新宗部曲越在禮山北界西終八十里 德興本德興部曲越在新昌西界西終六十八里 頓義本頓義鄉越在牙山西界西終六十二里 新宗德興頓義皆挾浦野地」 즉, 「신종은 부곡으로 예산 땅에 비월지 즉 월경지로 있고, 덕흥도 部曲으로 월경지이며 신창 땅에 있고 서쪽으로 끝이 68리 이고, 돈의는 鄉으로 아산 땅에 월경지로 위치하고 끝이 62리 이다. 신종, 덕흥, 돈의 모두 좁은 갯가의 들(野地)이다」라는 뜻이다.

40) 첫째 천안군 新宗面은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예산군 신종면으로 소속이 바뀌고, 그 후 다시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豆村面 등과 결합하여 신암면이 되었다. 즉, 옛 천안군 신종면 지역은 현재의 예산군 신암면 新宗里, 新宅里, 下坪里 지역에 각각 일부씩 흩어져 편입되었다. 즉 인접해 있는 이 3개 지역의 삼교천변에 옛날 新宗의 倉이 있었던 것이다. 즉 옛 천안군 신종면 上新里, 下新里 지역은 옛 천안군 신종면 新宗里 일부와 宅洞은 현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로, 옛 천안군 신종면 下坪리는 현 예산군 신암면 下坪리로, 그리고 하평리 일부는 현 아산군 선장면 신태리에 편입되었다.

41) 김정호의 『대동지지』 신창 창고조에 「邑倉 海倉大西面終境」, 또 『方輿總志』 권4 浦倉條에 「漕城倉 今新昌恭讓王三年築城收傍近州縣租稅漕至京師」, 城池條에 「漕城在獐浦恭讓王時築收傍近州縣租稅漕至京師」

42)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창현 건치연혁조 및 산천조에 「恭讓王三年築城於縣西獐浦號漕城才父旁近州縣租稅淨海達于京師始置萬戶兼監務本朝太祖元年省萬戶 獐浦在縣西十五里源出道高山入井浦渡」 즉, 「관아에서 서쪽으로 15리 떨어진 장포에 고려 제 34대 공양왕 3년(1391년)에 성을 쌓고 당성이라 부르고, 부근 주현의 조세를 여기에 수납해 두고 이를 해상으로 조운하여 서울로 수송하기에 당성창이라고 부른다. 만호 겸 감무를 두었던 것을 본조 태조 원년에 만호를 없앴다. 장포는 그 근원이 道高山에서 나와서 井浦渡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뜻이다.

43) 장포는 원래 신창군에 속해 있다가 예산군 今坪面 지역이 된 후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전 천안군 덕흥면 대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獐串里라 하여 아산군 椒井面에 편입되었다. 초정면은 仙掌浦의 이름을 따라서 1971년 선장면으로 고쳤다.

浦)로 들어가는 곳이다⁴⁴⁾. 그 당시 해창으로서 큰 역할을 하던 곳이다.

또 다른 포창이 신창현 관아에서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14간의 포창이 있어 전세곡과 대동미를 조운하여 봉납한 것 같다.⁴⁵⁾ 현재는 선장면 신곡리 하창(河倉) 즉 새원장 마을로 추측된다. 신곡리에서 가장 큰 기곡(基谷), 즉 텃골 마을에 옛 해창을 관리하던 집터가 있었다 한다.

천안의 창은 세곡미의 수송에 유리한 두 곳에 월경지를 확보하고, 삼교천변에 3개의 창(倉)을 설치하였다.⁴⁶⁾ 천안군 덕흥창이 현재의 아산시 선장면 돈포리·군덕리·대정리·신덕리·장곶리와 도고면 신언리 지역으로 삼교천과 무한천이 만나는 지점⁴⁷⁾이고, 돈의창(頓義倉)⁴⁸⁾은 현재 곡교천이 삼교천과 만나는 곳에 서로 인접해 있는 인주면 지역의 하천변이다.

읍창은 현재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북촌 읍창

터에 있던 창이고, 대서면(大西面)에 있던 해창은 현재의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해창말을 말한다.

7. 서산군

서산군에는 <표 2>와 같이 영풍창, 명천창, 읍창, 사창, 고창개〔古倉浦〕⁴⁹⁾, 대동창, 주사창 등이 있었다.

영풍창(永豊倉)은 서산 팔봉면 어송리 창개〔倉浦〕에 있어⁵⁰⁾ 이 부근 고을의 조세를 이곳에 저장하였다가 배로 운반하여 서울로 가져갔다⁵¹⁾. 사창의 경우 서산 운산면 거성리 2구 1반 창산(倉山) 또는 화성산이라는 야산 중단부 지대로, 1900년 이전까지 이곳에 바닷물이 차 있었고, 배가 들어와 정박했으며, 1920년대에는 이곳에서 6~7km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⁵²⁾

44)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창현 산천조에 「井浦渡在縣西二十里卽獐浦下流又禮山縣無限川合流于此入沔川郡犯斤乃浦」

45) 『여지도서』 신창현 창고조에 「邑倉十九間 浦倉十四間在縣北十五里大同兩局征米捧上裝運所」

46) 김정호, 『대동지지』 천안 창고조(倉庫條)에 「邑倉 毛山倉在牙山市浦 新宗德興頓義皆有倉」 즉, 「모산창은 아산의 시포에 있고, 신종, 덕흥, 돈의에는 모두 창이 있다」라고 하였고 신종, 덕흥, 돈의가 대동여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47) 천안군 덕흥면 지역은 고종 32년(1895년)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었고 그후 1914년 군면 폐합에 의하여 아산군 초정면에 편입되었다. 즉 신창군 북면과 대서면, 아산군 덕흥면, 돈의면과 이서면, 면천군 비방면 등의 각 일부를 통폐합하여 1914년 초정면(椒井面)으로 개편하였다. 그후 초정면을 1971년 선장면(仙掌面)으로 개칭했다. 이때 옛 덕흥면 堰里 일부가 도고면 新堰里로 편입되었다. 옛 천안군 덕흥면 지역은 현재의 아산시 선장면 頓浦里, 君德里, 大井里, 新德里, 獐串里와 도고면 新堰里로 옛 천안군 덕흥면 浦南里, 新興里, 十字堰里的 각 일부 지역은 현 아산군 선장면 軍덕리에, 옛 덕흥면 大井里와 宗德里 일부는 선장면 신덕리에, 옛 천안군 덕흥면 대정리 일부는 선장면 獐串리에, 옛 천안군 덕흥면 언리 일부는 아산군 도고면 신언리로 각각 편입되었다.

48) 돈의면은 고종 32년(1895년)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었고 그후 1914년 군면 폐합에 의해서 선장면과 인주면(仁州面)에 각각 일부씩 편입되었다. 옛 천안군 돈의면은 현 아산시 선장면 佳山里, 大興里, 蔡新堰里, 洪串里, 新門里와 인주면 海岩里, 文方里에 각각 일부씩 흡수되어 편입되었고 옛 천안군 돈의면 佳樂里와 채신언리 일부는 현 아산군 선장면 佳山里에, 또 채신언리 일부는 선장면 大興리에, 또 다른 일부는 선장면 蔡新堰리에, 천안군 돈의면 洪곶리 지역은 선장면 洪串里, 돈의면 가락리 일부지역은 新門里, 옛 천안군 돈의면 應峴리는 아산시 인주면 文方리로, 옛 천안군 돈의면 大寺洞은 인주면 海岩리로 편입되었다.

49) 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서산시, p.249.

50) 상계서, p.274.

51) 상계서, p.277.

52) 충남발전연구원, 1998, 서산시문화유적분포도, 충청남도, pp.225 ~ 226.

8. 결성현

결성현에는 <표 2>와 같이 남창, 서창, 해창이 있었다. 남창은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가곡창계골로 창터는 모산만(茅山灣)에서 북쪽으로 깊숙이 연결되는 내만지역으로 바닷물의 왕래가 있던 곳⁵³⁾이었고, 서창은 결성면 성남리 창말로 창터는 성호리 동쪽으로 성남리 중리마을 남쪽에 있다.⁵⁴⁾ 해창은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해동 모산만변의 항구지대에 해당되며 서남리 북쪽으로 금곡천이 이어지는 곳에 있었다.⁵⁵⁾

9. 보령현

보령현은 <표 2>와 같이 해창과 사창이 있었다. 해창은 보령 주교면 관창리 해창마을 북쪽 언덕에 위치하는 곳으로 조세를 받아 저장했다가 바다를 거쳐 한양 경창으로 운반하였다.⁵⁶⁾ 보령 오천면 원산도리 사창리(射倉里)·사창(社倉)은 구터리 서쪽으로 조선시대 사창(社倉)이 있어서 곡식 3500여 섬을 저장하였던 창고였다. 진촌(鎭村)은 사창(社倉) 북쪽마을로 관가(官家)가 있어 관인(官人)이 살았던 마을이고, 선촌(船村)은 진고지(津串之) 서북쪽 문호로서 선박의 출입이 많은 마을이다.

10. 해미현

해미현은 <표 2>와 같이 관창, 외사창, 사창이 있었다. 해미면 언암리 창말은 낮머리에 있

는 마을로 세곡을 저장하던 창고가 있었다.⁵⁷⁾ 외사창은 송전창(松田倉)으로 당진군 대호지면 송전(松田里) 벗말 서쪽 창말에 있었다. 창리(倉里), 창촌(倉村)이라고도 불렀다. 원래 해미군(海美郡) 서면(西面)지역으로 조선시대 세곡을 받아 보관하던 사창이다. 1914년 서산군 대호지면에 편입되었다가 1957년 당진군에 편입되었다.

11. 태안군

태안군은 <표 2>와 같이 남창, 북창, 중창, 주사창, 사창 등이 있었다. 태안군의 지명에 의하면 1914년 행정 구역 폐합 이전 동일면(東一面)에 상창리(上倉里)·북창리(北倉里)·창평리(倉坪里)·해창리(海倉里), 동이면(東二面)에 하창리(下倉里)가 있고⁵⁸⁾ 안면읍 창기리(倉基里)가 있다.⁵⁹⁾

고려 인종 12년(1134)이후 추진되어온 굴포 운하가 실패함으로써 굴포 남북해안에 각각 창고를 지어 남창, 북창을 지었다.⁶⁰⁾ 이를 안민창이라 했는데 태안읍 평천리 3구 평촌마을에 남창⁶¹⁾, 오석산 사면을 가로질러 어은리로 넘어가는 태안읍 도내리 2구 북창마을로 가로림만이 깊숙이 들어와 맞닿아 있는 곳이다. 현재 마을 중앙 정미소 옆 구릉 북동쪽 하단에 위치해 굴포운하의 공사실패로 굴포지역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있던 창고이었다.⁶²⁾

53)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홍성군문화유적분포지도, 충청남도, pp.216 ~ 217.

54) 상계서, p.219.

55) 상계서, pp.213 ~ 214.

56) 상계서, p.174.

57) 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전계서, p.329.

58) 태안군지편집위원회, 1995, 태안군지, 태안군, pp.857 ~ 858.

59) 상계서, pp.862 ~ 864.

60)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태안군문화유적분포도, 충청남도, p.181.

61) 상계서, pp.176 ~ 177.

62) 상계서, p.157.

표 2. 내포지역의 조창분포 현황

군현명	창 명	현 위 치 ⁶³⁾	비 고
면천군	북 창	당진 송산면 당산리 1구 북창	
	남 창	당진 우강면 창리(倉里)	
	가곡창	당진 송산면 가곡리	사창(社倉), 면천군 창택면(倉宅面) 창리(倉里)지역,
	오산창	당진 순성면 본리 오산 북쪽	사창(社倉), 삼교천의 지류인 남원천의 상류 순성천변
	둔 창	당진 우강면 내경리 고래원 북서쪽	조선시대 둔전(屯田)이 있어 곡식을 보관하던 창
홍 주	북 창	당진 순성면 중방리 1구 북창	
	서 창	서산 고북면 봉생리 2구 514 서창	지방세 수납창, 홍주읍지(洪州邑誌) 창고조, 옛 홍주망
	남 창	홍성 은하면 장척리 포항과 중리 남쪽 외곽	청양 등 내륙에서 운반해 온 세곡 저장 창고
	운 창		
	사 창		
	목정창	당진 합덕읍 대합덕리	社倉, 홍주 합남면(合南面)지역, 홍주 관아에서 북방 60리
	마항창	당진 신평면 초대리 1리 소창말	社倉, 홍주 신북면(新北面)지역
	구 창	당진 신평면 운정리 성치(城峙) 남쪽	옛날 사창(社倉)
	공세창	당진 신평면 운정리 중구리 북쪽	사창(社倉)
	대부창	홍성 장곡면 대현리 1구 내북동	사창(社倉), 무한천 상류(홍성문화유적분포지도, p.198.)
그외		홍주읍지(洪州邑誌) 창고조에 10개의 사창(社倉)이 있었다 함.	
결성현	남 창	홍성 결성면 성호리 가곡 창계골	모산만(茅山灣) 북쪽 내만지역, (홍성군문화유적분포지도, pp.216 ~ 217.)
	서 창	홍성 결성면 성남리 창말 창터	홍성군문화유적분포지도, p.219.
	해 창	홍성 결성면 읍내리 해동	모산만변의 항구지대(홍성군문화유적분포지도, pp.213 ~ 214.)
당진현	해 창	당진 고대면 당진포리 2구 해창	
	북 창	당진 당진읍 우두리(牛頭里) 태성	
	외 창	당진 석문면 삼화리 2구 해변	사창(社倉), 현 환영칠강공장 옆 염전터, 본래 당진군 외맹면 외창리(外倉里)지역
	용두창	당진 고대면 용두리 셋밭	사창(社倉)
대흥군	호두포창	예산 신암면 중경리	무한천의 하류
	읍 창		
덕산군	해 창	당진 합덕읍 합덕리 창말 덕산촌	비방곶면 창리
	읍 창	예산 덕산면	
예산현	외 창	예산 예산읍 창소리(倉所里)	무한천의 하류
	읍 창		
천안군	신종창	예산 신암면 신종리·신태리·하평리	삼교천변
	돈의창	아산 선장면 가산리·대흥리·채신언리·홍꽃리·신문리와 인주면 해암리·문방리에 일부씩 편입	곡교천이 삼교천과 만나는 곳에 인접해 있는 지역의 하천변
	덕흥창	아산 선장면 돈포리·군덕리·대정리·신태리·장꽃리와 도고면 신언리에 일부씩 편입	삼교천과 무한천이 만나는 지점

<표 계속>

신창현	당성창	아산 선장면 장곶리 장포 평창(坪倉)	공양왕 3년(139(1) 당성 쌓음, 장포 무한천 상류, 정포도는 무한천과 삼교천의 합수점, 조선 초 조세창을 면천의 범근내포로 옮김
	읍 창	아산 신창면 읍내리 복촌 읍창터	
	해 창	아산 선장면 대흥리 해창말	대서면(大西面) 끝
	하 창	아산 선장면 신곡리 새원장	신곡리 기곡(基谷 : 텃밭)마을에 옛 해창을 관리하던 집터
아산현	둔 창	당진 우강면 내경리(內鯨里) 경원(鯨元 : 고래원) 북서쪽 둔창	조선시대 둔전(屯田)에서 생산되는 곡식 보관
	공세곶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貢稅里) 공진창(貢津倉)	해운관관 비석과 창성(創城) 일부 보존
보령현	사 창	보령 오천면 원산도리 사창리(射倉里)사창(社倉)	사창, 곡식 3500여 섬을 저장하였던 창고
	해 창	보령 주교면 관창리 해창마을	
서산군	영풍창	서산 팔봉면 어송3구 782 창터, 영풍창터	영풍창면 창개 (倉浦) 남쪽 창고터, 고려시대 영풍창을 두어 조세 저장 ⁶⁴⁾
	명천창	서산 성연면 명천리 930	서산군내 세곡수집, 영풍창지로 잘못 표기
	읍 창	서산 읍내동	환미격납 및 관아창, 서산경찰서 광장
	사 창	서산 운산면 거성리 2구 1반	서산시문화유적분포도, pp.225 ~ 226.
	사 창	서산 잠흥동	환곡저장고
	고창개	서산 대산읍 오지리 고창개	지역세곡수납, 옛 창고
	대동창	서산 부석면 취평리	대동미 수납, 대동법실시 후의 창고
	주사창	서산 부석면 창리	수군창고
태안군	주사창	태안 남면 당암리	수군창고
	사 창	태안 태안읍 삭선리	환곡격납
	사 창	태안 이원면 사창리	환곡격납
	사 창	태안 이원면 관리	환곡격납
	창	태안 고북면 가구리	환곡격납
	남 창	태안 태안읍 평천리 3구 124	삼남세곡, 굴포운하 관련창고
	북 창	태안 태안읍 도내리 2구 625	삼남세곡, 굴포운하 관련창고
	중 창	태안 태안읍 인평리 3구 34	삼남세곡, 굴포운하 관련창고
해미군	사 창	서산 해미면 읍내리	환곡격납
	관 창	서산 해미면 관유리	지방세곡 수납
	의사창	당진 대호지면 송전리 창말	환곡격납, 사창, 1914년 서산군 대호지면 편입, 1957년 당진군 편입

상창은 도내리 2구 북창마을 위에 상창(上倉) 마을이 있는데, 그 곳이 상창으로 북창과 같이 굴포운하를 통하여 운반되던 세곡선의 세곡미를 보관하던 창과,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불탄 개 마을 창터는 안면 제일침례교회 앞 경작지이

다⁶⁵⁾. 태안 이원면 관리 창말 창터는 마을입구 야산의 남동향 사면 하단으로 원득을 쌓기 전 저수지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세곡미를 거두어 갈 수 있는 창고가 있던 해운로이고, 태안 이원면 사창리 창터는 마을회관 인근 구릉의 저평

63) *서산태안해미지역의 자료출처 : 이은우, 1997,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굴포운하, 서산문화 9호, 서산향토문화연구소, pp.59 ~ 60.

64) 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서산시, p.274, p.277.

65) 상계서, pp.157 ~ 196.

한 동북향 사면으로 바닷물이 창터 앞까지 들어와 세곡미를 거두어 운반하였다.⁶⁶⁾

IV. 결론

이상과 같이 내포지역의 조창을 살펴보았다. 내포지역에는 문헌 및 현지 주민들, 그리고 지명으로 파악되는 조창을 주군현별로 분류해 보면 14개 군현 지역이 내포지역에 조창을 두고 서울 마포창으로 세곡을 운반하였는데 홍주 10곳, 면천군 5곳, 해미군이 3곳, 태안군이 8곳, 서산군 8곳, 보령현 1곳, 아산1곳, 신창현이 5곳, 천안군 3곳, 예산현 2곳, 대흥군 2곳, 덕산현 2곳, 당진현 3곳, 결성현 3곳으로 총 56개 조창이 있었다.

이렇게 내포지역에 많은 조창이 있었던 것은 내포의 젖줄인 삼교천이 아산만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운로가 발달하면서 삼남지방의 세곡을 운반하던 배들이 태안반도의 안흥량과 쌀썩은여에서 잦은 난파로 삼교천 연안으로 세곡을 육로 운반했고 또 삼교천에 근접한 각 주군현들이 이 수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중에서도 홍주가 제일 많은 조창이 있는데 이는 월경지인 합남면, 신북면 등이 있어서 남서-북창과 아울러 사창이 많았기 때문에 홍주읍지 창고조에 10곳이 있었다고 하나 3곳은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내포지역은 안흥량과 쌀 썩은여 지역에 잦은 난파사고로 굴포운하를 건설해 그 당시 만들어진 안민창이 있는데 남창, 중창, 북창 등이 있다.

이처럼 조창의 분포가 삼교천, 그리고 태안반도의 난파로 인해 많은 수의 조창이 분포했으며, 아울러 간척사업, 또는 토사가 쌓여 창지가 해안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다.

그 예로 면천 남창에 토사가 쌓여 공세곶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아울러 이런 조창은 한 고을 내에서는 읍내에 읍창, 그리고 주군현의 관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의 해안에 위치한 해안창, 농경지 근거리에서 사창 등으로 분류해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각 군현에서 관장한 창은 1~3곳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文獻

- 〈대동지지〉
- 〈대흥군지〉
- 〈덕산군지〉
- 〈덕산현읍지〉
- 〈방여총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여지도서〉
- 〈예산현읍지〉
- 〈증보문헌비고〉
- 〈충청도읍지〉
- 〈택리지〉
- 〈홍주읍지〉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태안군문화유적분포도, 충청남도.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홍성문화유적분포지도, 충청남도.

김추운, 1991, 물의 지리적 접근(1), 한국지리교육학회 학회보 제16호.

김추운, 1995, 삼교천의 역사문화, 당진문화원.

노도양, 1979, 〈가적운하개착의 역사지리적 고찰〉, 《청파집(淸破集)》, 명지대학 출판부.

덕산향토지편찬위원회, 1996, 덕산향토지, 금오인쇄사.

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서산시지 제1권 서산의 지리》, 서산시.

서산시지편찬위원회, 1998, 《서산시지 제5권 서산

66) 상계서, pp.262 ~ 264.

의 민속문화》, 서산시.

안길정, '조행일록'의 무대 성당창과 익산일대의
조운 유적, 제20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
상집.

이은숙, 1994, 〈조선시대 서울의 교통수단과 교통
로〉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임덕순, 1990, 문화지리학, 법문사.

충남발전연구원, 1998, 서산시문화유적분포도, 충
청남도.

충청남도지, 1979, 제2편 역사 굴포군지 개착, 충청
남도.

태안군지편집위원회, 1995, 태안군지, 태안군.